

특별강연 I

| 일시 2020년 7월 8일(수) ~ 7월 10일(금)



유 명 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교 부교수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학회장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위원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건강

신종감염병은 대표적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의 사례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발생이 보고된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즉 코로나19는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인류 역사상 6번째로 세계적 대유행을 맞이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발생 후 한국 사회는 하루도 예외 없이 코로나19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었다. 대개 감염병의 확진자 규모가 줄면 사회적 관심을 가늠하는 지표의 하나인 언론 보도 (news coverage)가 급격히 줄기 마련인데, 코로나19의 경우는 계속해서 높은 사회적 의제를 유지 중이다.

위기는 대부분 예고 없이 닥치며 그 점에서 무례한 습격이란 이름이 붙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위기는 그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이를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로 비유하기도 한다. 동시에 위기는 어떤 사회에 새로운 동력과 성장 발판이 되기도 한다. 위기 기회론이 이런 맥락에 있다.

발생 반 년,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어떤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냈을까. 동시에 어떤 기회의 동력을 마련했을까. 본 강연에서는 ‘위험 인식’과 ‘재난 심리’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위기 경험’을 통해 이 내용을 짚어본다. 백신과 치료제의 일정표가 여전히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사태 장기화는 나와 서로의 경각심과 그에 뒤따르는 예방행위의 실천과 상호 신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연대와 신뢰의 교환 또한 다뤄본다.

